

##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출애굽기 3:1-22

여러분은 가을 꽃 중에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자기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가 의미 있는 몸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이름도 누군가가 그저 꽃 정도가 아니라 빛깔과 향기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내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불러달라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소명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명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사명은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체적으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어도 좋은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이 그냥 불리워지는 소명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사명을 알고 산다면 얼마나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사명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40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낫을 피하여 도망와 미디안 광야에서 장가들고 산지가 40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만에 등장하는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향후 그가 받을 사명과 연관된 빛과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익숙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사명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양들을 치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출 3:4b) 외롭고 힘들었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 147:4, 사 43:1)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모세는 감격하여 즉각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출 3:4c) 그를 부르는 소명 앞에 모세는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짓밟혀 신음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출 3:9-10)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을 접착점으로 삼아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여 억눌린 자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모세의 반응이 사뭇 달라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 3:11) 출애굽기 4장과 7장에 보면 모세는 입이 뻗뻗하여 말을 잘 못하는 80세 노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아시면서, 자기의 한계를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명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지며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a)

이 약속을 부여잡은 모세는 하나님께 또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 볼 것입니다. 그 때 제가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텐데 어떻게 대답할까요?”(출 3:13) 첫 번째로 “Who am I?”(내가 누구기에?)라고 반문했던 모세가 이제는 “Who are you?”(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 3:14) ‘스스로 있는 자’(I AM)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1. 과거에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뿐 아니라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로 묶이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 섭리, 통치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실 때 주로 사용됩니다.(창 1:1, 창 8:1) 여호와는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만 일러주시는 이름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창 12:1-2) 본문에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지난 날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섭리하셨으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 3:14-15)

### 2. 현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출 3:16)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며, 현재의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하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 3. 미래를 열어 가시고 빈손을 채우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수많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젃과 꿀이 흐르는 곳,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 3:17-22)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부름 받아서 축복받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사명 받고 가라고 할 때는 “나는 아닌데요” 하는 삶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 가라는 데까지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 ○ 나눔의 시간 ○

1. 소명과 사명이란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3.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요?
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